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민의 기초수요 조사연구

김수욱
(전국대학교 농업교육과)

A Study on the Basic Needs of Rural People for the Better Rural Human Settlement

Soo-Wook Kim

Dept. of Agricultural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Konkuk University, Seoul 133-701, Korea

적 요

최근 농촌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바람직한 인간정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농촌정주권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촌정주권개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초수요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농촌개발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효과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농촌주민과 접촉이 빈번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농업관련 공직자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자료는 8개도 376명의 공직자로부터 수집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최빈값을 토대로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가가구의 평균소득이 최소한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90~100%는 되어야 한다.
- ② 1일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7~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농업종사자는 남녀 모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농촌주민들의 자녀 교육비는 농가소득의 6~9% 수준이어야 한다.
- ⑤ 농촌 국민학생의 통학시간은 20분 이내라야 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21~30분이어야 한다.
- ⑥ 농촌 주민들의 약국 접근시간은 15분 이내, 병(의)원 접근시간은 16~30분 정도라야 한다.
- ⑦ 농촌주민들은 연간 3~4회의 보건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⑧ 농촌의 주택규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한 20~25평은 되어야 한다.
- ⑨ 농촌주민들은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전시회, 박물관 관람 등과 같은 문화활동을 연간 3~4회, 관광활동도 연간 3~4회는 즐겨야 한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굳건히 육성되어야 하며 농촌은 귀중한 국토자원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우선 이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부터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문제의 제기

1960년대 이후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농촌지역은 국토공간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인간정주의 공간개념은 무시된 채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곳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즉 지난 30여년간 국민총생산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국가의 총량적 경제성장이 국민 모든 계층과 모든 지역에, 특히 농촌주민과 농촌지역에 균등한 복지를 주리라는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개개인의 복지보다는 종합적인 성장을 중시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중앙의 개발의지가 중시되는 하향식 개발전략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상향식 개발이론 가운데 하나가 기초수요이론이다. 기초수요이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 또는 수요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개발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기초수요는 사회적 수요와 개인적 수요로 대별되는데 사회적 수요는 집단의 생존과 복리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 수요는 개인의 사적인 소비와 선택권을 포함한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분산된 정주지내에 분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농촌의 저개발은 농촌주민의 도시이주를 가속화시켰으며 농촌지역은 인구의 과소화로 그 나름대로 기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초수요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권이 확대되고, 인간의 기능이 다양화되면 그 구성요소도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어 간다. 그러므로 기초수요의 개념은 동태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최근 농촌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바람직한 인간정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농촌정주권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농촌정주권개발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게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이 요구하는 기초수요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조사, 분석하여 농촌정주생활권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촌주민들의 소득 및 소비와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② 농촌주민들의 근로 및 노동과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③ 농촌주민들의 교육과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④ 농촌주민들의 보건 및 주택환경과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⑤ 농촌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과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⑥ 농촌지역의 정주체계별로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기초수요를 조사한다.
- ⑦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정주생활권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수요 확충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방법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효과적으로, 비교적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농촌주민들과 접촉이 빈번하고, 농촌주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읍·면의 공직자와 농촌지도사를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우선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에서 각 2개군을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도별로 1개군에서는 40명의 읍면 공직자를, 1개군에서는 20명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로 조사표가 회수된 조사대상자는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회수된 조사자료는 PC에 내장된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농촌주민의 기초수요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주민들이 아직까지 기초수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농촌주민

표 1. 조사대상자 수

도	군	기관	조사의뢰공직자	회신자	회신율
경기	여주	읍·면사무소	40	37	92.5
	용인	농촌지도소	20	19	95.0
강원	횡성	읍·면사무소	40	34	85.0
	양양	농촌지도소	20	0	0.0
충북	괴산	읍·면사무소	40	39	97.5
	진천	농촌지도소	20	0	0.0
충남	금산	읍·면사무소	40	36	90.0
	예산	농촌지도소	20	18	90.0
전북	고창	읍·면사무소	40	36	90.0
	진안	농촌지도소	20	16	80.0
전남	장흥	읍·면사무소	40	40	100.0
	함평	농촌지도소	20	19	95.0
경북	예천	읍·면사무소	40	38	95.0
	성주	농촌지도소	20	0	0.0
경남	거창	읍·면사무소	40	30	75.0
	의령	농촌지도소	20	14	70.0
계			480	376	78.3

을 배제하고 농촌주민과 접촉이 빈번한 공직자만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초수요이론의 등장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들은 총량적 국민경제 성장(GNP)을 목표로 하는 경제개발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GNP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개발의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하였고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대해 Adelman과 Taft-Morris는 그들의 저서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빈곤층에 자동적으로 또는 파급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에 따라 절대빈곤층은 더욱 악화된다”고 하였다.¹⁾

이처럼 경제발전을 통한 GNP 증가가 개발의 궁극적 목표인 기초수요(human basic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결과는 여러 사람에게 고루 분배되지도, 빈곤층의 불행을 경감시

키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영양, 교육, 보건 등에서의 기초수요 충족의 실패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해치며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었다.²⁾

Dudely Seers³⁾는 1967년 국제개발협회의 연설을 통해 “개발의 의미(the meaning of development)”를 생산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고용과 소득 분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James H. Weaver⁴⁾는 전통적인 GNP 성장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확신하에 ‘성장과 평등접근(growth and equality approach)’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성장 및 평등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성장과 평등 접근을 ① 고용 창출전략, ② 투자전환전략, ③ 기초수요전략, ④ 인적자원개발전략, ⑤ 농업우선적 개발전략, ⑥ 통합적 지역개발전략, ⑦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전략 등으로 구분하였다.

기초수요 접근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세계은행의 Mahbub ul Haq로 이 방법을 ‘빈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두번째 제창자인 Jams Grant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기초수요를 충족시킨 스리랑카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⁵⁾

1976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고용회의(World Employment Conference)의 결의안에서 기초수요접근의 행동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한 개발전략의 실제적 운용기법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⁶⁾

또한 UNCRD(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는 1977년 12월 지역개발전문가회의에서 기초수요개발전략을 아시아의 3개국(한국, 인도, 필리핀)의 소단위 지역개발계획에 시험적으로 반영한 바가 있다.⁷⁾

2. 기초수요의 개념

Need는 그 학문의 영역에 따라 흔히 요구(need), 수요(demand), 욕구(want)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 사회복지측면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basic need는 basic human need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

기초수요는 시대, 지역 등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초수요란 가장 긴박하고 중요하며 우선적인 욕구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이며 필수적인 동시에 최저수준이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⁸⁾

국제노동기구가 표현한 기초수요란 가난한 사람(poor)이 품위있는 생활(decent life)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물품(good)과 서비스(service)의 수요를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에서 표현한 기초수요는 크게 열두 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건강(health), 식량(food), 교육(education), 작업환경(working condition), 취업(employment), 소비와 저축(consumption and savings), 교통(transportation), 주택(housing), 의류(clothing), 위락(recreation), 안전(security), 자유(freedom) 등에 관한들이다.⁹⁾

히스(Norman Hicks)는 기본수요를 6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기본(hard core)을 결정하여 놓고 이에 따라 기본수요를 측정하고 있다.¹⁰⁾

첫째는 보건(health)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평균수명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는 교육(education)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문맹률과 국민학교 입학율등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는 식량(food)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칼로리(calories)량을 기본으로 한다. 넷째

는 식수(water)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식수보급을 기준으로 한다. 다섯째는 위생(sanitation)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위생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여섯째는 주택(housing)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는 주택의 보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John Mcctale¹¹⁾은 기본수요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hard core)을 정하여 놓고 이를 근거로 기본수요를 측정하고 있다. 첫째는 식량으로서 여기에서는 칼로리와 단백질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는 보건으로서 여기서는 평균수명, 병상, 의사, 간호원, 사망률, 출생률 등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는 교육으로서 여기에서는 문맹과 취학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넷째는 주택으로서 여기에서는 주택의 최저수준에 따라 측정하고 있다.

Bradshaw¹²⁾는 기초수요를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s), 의식욕구(felt need), 표출욕구(express needs), 비교욕구(comparative needs)로 구분하였다.

Schwefel¹³⁾은 기초수요를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만한 조건에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처럼 기초수요는 그 개념이 다양하여 통일된 개념을 창출해 낼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주로 단순히 생존을 위한 물질적 최소수요에 초점을 두었고 점차 인간의 다양한 생활영역별 기초수요 즉 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영역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3. 농촌개발과 기초수요이론

지역개발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발전에 대한 성과를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고루 분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⁴⁾

지역개발은 크게 하향식개발(development from above)과 상향식개발(development from below)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하향식개발방식은 주로 외부수요와 혁신력(innovative impulses)에 기초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출 지향적이며 자본 기술집약의 공업개발에 치중한다. 또한 경제개발 성장기준으로서 GNP 성장을 상정하고 있다.

상향식개발방식은 지역주민의 기초수요(basic needs)와 관련된 개발정책으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된다. 주로 농촌개발, 노동집약, 적정기술, 지역주의, 소규모 사업 등에 적용되는 개발방식이다.

상향식개발방식 중 기초수요전략(basic needs strategy)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소규모의 개발방안으로 주민의 참여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을 지향하는 공간적 개발계획이다. 또한 개발의 초점을 사물(thing)에서 사람(human)으로 옮겨 이전의 개발전략에서 소외된 빈곤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요충족 그 자체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⁵⁾

농촌개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초수요이론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열가지로 요약된다.¹⁶⁾

- ① 개발의 목표를 기초수요의 공급에 둔다.
- ② 개발은 적정규모의 지역(territorial base)에서 조직된다. 여기서 적정규모의 조직이란 비교적 소규모의 지역을 의미한다.
- ③ 지역의 범위가 한정된다. 이적은 자립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범위는 사업의 목적, 지리적 여건,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지구(district), 지역(regional), 국가(nation) 등과 같이 구분된다.
- ④ 여러가지 생산요소는 지역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히 토지 용수와 같은 생산요소는 지역의 공동 소유로 한다. 여기서 주민 개인들은 단기적인 가지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지역 전체는 장기적인 지역이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 ⑤ 모든 주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각 개인이 사회적 성장을 하는 데는 생산재, 자본, 정보, 지식, 정치조직 등의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주민은 이러한 여건에 누구나 다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지방분권화를 이룩한다. 이것은 각 지역으로 하위급 자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 ⑦ 행정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모든 사람이 기초수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⑧ 행정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모든 사람이 기초수요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생산과 분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⑨ 세계경제체제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기초수요전략은 세계경제와 무조건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공개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선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⑩ 도시보다는 농촌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한다. 빈

곤의 대부분이 농촌에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의 공식부문 산업보다는 도시의 비공식 부문이나 농촌의 재래식 산업분야에 무거운 비중을 둔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등과 같은 분야는 강조하지 않는다.

Ⅲ. 조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로는 남자들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30~49세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수가 3~4명인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며 학력을 보면 고졸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공직경력은 5년 이하가 33%, 20년 이상이 25%이었다. 거주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읍·면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소득 및 근로에 관한 기초수요

인간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결정하는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소득이다.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는 자료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표 3>과 같은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평균 월소득 비교이다. 그러나 <표 3>에 제시된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은 구성개념상 많은 차이가 있어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여 다양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의 기회도 적고 생활비 지출도 도시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다소간 낮은 소득으로도 비슷한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다. <표 4>는 농가가 도시가구에 비해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면 도시로 이농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농가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평균소득과 비슷(90~100%)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6%이었으며, 80~90%는 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도 26%이었다. 100~110%는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평균소득이 도시가구의 평균소득과 비슷하여야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이 가능함을 조사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구 분		빈도(명)	비율(%)
성 별	남	321	85.4	학 력	고 졸	237	63.0
	여	55	14.6		전문대졸	47	12.5
	계	376	100.0		대졸이상	92	24.5
연 령	20~29세	79	21.0		계	376	100.0
	30~39세	137	36.4	공직경력	5년 이하	124	33.0
	40~49세	102	27.1		6~10년	45	12.0
	50세 이상	58	15.4		11~15년	51	13.6
	계	376	100.0		16~20년	61	16.2
가족수	2명 이하	50	13.3		20년 이상	95	25.3
	3~4명	190	50.5		계	376	100.0
	5~6명	119	31.6	거주지역	도시	66	17.6
	7명 이상	17	4.5		읍	187	49.7
	계	376	100.0		면	123	32.7
					계	376	100.0

표 3. 도시·농촌 가구의 평균소득비율

단위 : 원

연도	도시근로자 월소득(A)	농가월소득(B)	B/A (%)
1990	943,272	918,815	97.4
1991	1,158,608	1,092,087	94.3
1992	1,356,110	1,208,788	89.1
1993	1,477,828	1,410,664	95.5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표 4. 농촌가구의 소득에 관한 기초수요

도시가구에 비해 농촌가구의 연평균 소득비율(%)	빈도(명)	비율(%)
70% 이상~ 80% 미만	67	17.8
80% 이상~ 90% 미만	97	25.8
90% 이상~100% 미만	98	26.1
100% 이상~110% 미만	62	16.5
110% 이상~120% 미만	33	8.8
120% 이상	19	5.1
계	376	100.0

일반적으로 농업은 힘든 노동과 많은 노동투하시간을 요구한다고 한다. 실제로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도 많은 농촌주민들이 농업 노동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에게 농업계승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통계조사

에도 농업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5 참조)

〈표 6〉은 농촌주민들의 1일 평균근로시간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4%는 7~8시간이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농촌주민들도 타산업종사자나 최소한 비슷한 근로시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이 조사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다른 산업분야 종사자의 근로시간보다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농업 노동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7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율은 22%에 이른다.

3. 교육에 관한 기초수요

농업도 다른 산업에 못지 않게 전문화, 과학화되고 있으므로 농업종사자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표 5. 업종별 주당평균 근로시간

연도	평균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광고 통신업	금융보험 부동산용역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48.2	36.2	49.8	47.8	45.8	47.5	48.8	43.6	44.5
91	47.9	39.5	49.3	48.6	45.6	47.5	49.1	44.2	44.6
92	47.5	39.5	48.7	49.2	46.0	47.5	48.6	44.4	44.8
93	47.5	40.7	48.9	48.0	46.6	46.3	47.5	45.6	44.7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표 6. 농업노동에 대한 기초수요

적정 1일 평균근로시간 (휴일제외)	빈도(명)	비율(%)
6시간 이하	43	11.4
6~7 시간	40	10.6
7~8 시간	201	53.5
8~9 시간	54	14.4
9시간 이상	38	10.1
계	376	100.0

〈표 7〉은 농업종사자로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적 교육수준을 성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들의 57%는 남성 농업종사자의 기초적 학력수준으로 고졸을 들고 있으며, 40%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성 농업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학력은 대다수(73%)의 조사대상자들이 고졸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전문대졸 이상이라는 응답비율은 1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남성 농업종사자의 기초적 교육수준이 여성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표 7. 농업종사자들의 기초적 교육수준

기초적 교육수준	남성농업종사자		여성농업종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중 졸	9	2.4	32	8.5
고 졸	214	56.9	273	72.6
전문대졸	118	31.4	57	15.2
대졸이상	35	8.3	14	3.7
계	376	100.0	376	100.0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학력수준은 남녀 모두 고졸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농촌의 교육환경은 도시에 비해 열악한데 비해 농

가의 교육비는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농가의 교육비는 전체 가계지출의 1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도시가구의 교육비 부담은 농가가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표 8 참조) 자녀교육비가 전체 가계비에

표 8. 교육비 지출

단위 : 원

연 도	도 시 가 구			농 촌 가 구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교육비비율	연간소비지출	연간교육비	교육비비율
1990	8,227,946	664,704	8.1	8,227,213	862,436	10.5
1991	9,820,083	808,152	8.2	9,416,754	975,079	10.4
1992	11,303,391	1,013,940	9.0	10,045,960	1,041,316	10.4
1993	12,251,440	1,111,344	9.1	12,202,567	1,244,407	10.2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야 농촌주민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바람직한 자녀교육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0%는 6~9%를 제시하고 있으며 28%는 6%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비 지출율과 비슷한 9~12%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30%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60%의 농촌주민이 지금과 같은 교육비 지출을 농가경제에 과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참조)

표 9. 자녀교육비에 관한 기초수요

농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비 지출을 비율	빈도(명)	비율(%)
3% 미만	16	4.3
3~ 6% 미만	90	23.9
6~ 9% 미만	114	30.3
9~12% 미만	111	29.5
12% 이상	45	12.0
계	376	100.0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인구 증가율의 둔화에 영향을 받아 농촌의 국민학교는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중학교도 앞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국민학생과 중학생의 통학의 어려움을 농촌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낮추고 이농을 촉진할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같은 군 내에서는 통학이 어려울 정도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표 10〉은 농촌지역에서 각급 학교별로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국민학교의 경우는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통학시간이 30분 이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40분 이내여야 불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의료 및 보건에 대한 기초수요

농촌지역의 여러가지 편익기능 가운데 가장 낙후되었으나 반면에 유지하기 어려운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의료 및 보건 분야이다. 특히 의료 및 보건분야의 편익기능들은 그 수가 제한되어 대부분이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어 농촌주민들의 접근도가 불량하다. 그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기자재의 낙후도 농촌의 생활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표 11〉은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시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농촌에서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약국의 경우 15분 이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16~30분도 35%에 이르렀다. 즉 농촌에서 약국에의 접근시간은 30분 이내여야 한다는 응답율은 80%를 상회한다. 병(의)원의 경우는 접근시간이 16~30분이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하였으며 15분 이내는 26%, 31~45분은 16%이었다. 즉 농촌주민들의 병(의)원에 대한 접근시간도 30분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도시민에 비해 어렵고, 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약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인력자원도 부족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농촌주민 보건·의료교육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표 12〉는 농촌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최소한 연간 몇 회 정도의 보건·의료교육이

표 10. 적정 통학시간

적정 통학시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20분 이내	223	59.3	90	23.9	73	19.4
21~30분	123	32.7	177	47.1	156	41.5
31~40분	23	6.4	89	23.7	96	25.5
41~50분	4	1.1	16	4.3	24	6.4
51~60분	2	0.5	3	0.8	23	6.1
1시간 이상	0	0.0	1	0.3	4	1.1
계	376	100.0	376	100.0	376	100.0

표 11. 적정 의료시설 접근시간

접근시간	약 국		병(의) 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5분 이내	211	56.1	98	26.1
16~30분	132	35.1	186	49.5
31~45분	26	6.9	60	16.0
46~60분	5	1.3	22	5.9
1시간 이상	2	0.5	10	2.7
계	376	100.0	376	100.0

표 12. 연간 희망 보건의료교육회수

연간 교육회수	빈도(명)	비율(%)
1~ 2회	126	33.5
3~ 4회	175	46.5
5~ 6회	50	13.3
7~ 8회	7	1.9
9~10회	8	2.1
11회 이상	10	2.7
계	376	100.0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약 절반 가량(47%)이 연 3~4 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2 회 정도면 된다는 응답도 34%

로 비교적 높았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최소한 계절 별로 1회 정도씩의 보건~의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5. 주거환경에 대한 기초수요

농촌의 자가거주 비율은 과밀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촌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민에 비해 낮다. 자기 주택에 만족하는 농촌주민은 23%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주민들이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는 주택의 노후화, 주택의 협소, 부대시설의 미흡 등이다.¹⁷⁾

〈표 13〉의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0년 현재

표 13. 농촌의 주거공간

연도	건 평 (평)			방의 수 (개)		
	주택당	가구당	1인당	주택당	가구당	1방당 인구수
1975	16.2	14.3	2.7	2.9	2.5	2.1
1980	18.4	15.9	3.4	2.9	2.5	1.9
1985	17.8	15.2	3.6	3.0	2.5	1.7
1990	20.5	17.8	4.8	3.1	2.5	1.3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표 14. 농가의 주택규모에 대한 기초수요

농가 주택규모	빈도(명)	비율(%)
15평 미만	5	1.3
15~20평 미만	54	14.4
20~25평 미만	189	50.3
25~30평 미만	110	29.3
30평 이상	18	4.8
계	376	100.0

우리나라 농촌가구의 주거면적은 17.8평이며, 1인당 전용면적은 4.8평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표 14〉에서 보면 조사대상자들의 5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농가가구의 주택규모가 최소한 20~25평은 되어야 불편없이 살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25~30평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30%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주택의 개량사업이나 신축사업시에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감

안하여 농촌주택의 적정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6.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기초수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도시에 비해 가장 낙후된 부분이 농촌의 문화 및 여가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농촌지역에는 극장 및 공연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이 매우 희소하거나 있어도 접근도가 불량하여 농촌주민들은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또한 관광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와 공간도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문화적 욕구가 증대된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주민들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를 알아내고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15〉는 '농촌주민들이 영화 및 연극관람, 박물관 견학, 음악회나 미술전시관 관람, 기타 공연장 관람 등 문화활동을 최소한 연간 몇 번은 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표 15. 문화활동에 대한 기초수요

연간 문화활동 회수	빈도(명)	비율(%)
1~2회	82	21.8
3~4회	164	43.6
5~6회	79	21.6
7~8회	22	5.9
9회 이상	29	7.7
계	376	100.0

조사대상자의 44%는 최소한 연간 3~4회의 문화활동이 요구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2회, 5~6회라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22%에 이른다.

한편 '농촌주민들이 연간 최소한 몇 번의 관광을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16〉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50%가 최소한 연간 3~4회의 관광이 요청된다고 응답하였으며 1~2회라고 응답한 조사자의 비율은 39%에 이른다. 즉 농촌주민들도 최소한 연간 3~4회의 극장이나 공연장 관람, 박물관 견학등과 같은 문화활동을 즐기고 3~4회의 관광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6. 관광활동에 대한 기초수요

연간 관광 회수	빈도(명)	비율(%)
1~2회	147	39.1
3~4회	187	49.7
5~6회	32	8.5
7~8회	6	1.6
9회 이상	4	1.1
계	376	100.0

7. 편의시설에 대한 기초수요

미래의 이상적인 농촌사회는 쾌적한 인간정주의 사회이어야 한다. 그러자면 농촌도 도시 못지않게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급속한 인구감소로 각종 편의시설의 입지에 필요한 임계인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히려 기존의 편의시설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기능들은 쇠퇴하고 있다.

농촌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는 농촌의 정주체계에 따라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입지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 교통수단의 발달, 농촌경제사회발전에 따른 편의시설 기초수요의 변화, 농촌정주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따라 농촌주민의 편의시설의 요구도는 달라질 수 있다. 〈표 17〉은 우리나라 농촌의 기본적인 정주계층인 마을, 면소재지, 농촌중심도시 별로 현재 당해 지역의 입지여부에 관계없이 편의시설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0% 이상이 마을에 꼭 입지해야 할 편의시설이라고 응답한 것만 보면 가로등, 공중전화, 상수도 시설, 노인회관, 약방(매약업소), 우체통, 공동쓰레기장, 하수도시설, 어린이 놀이터,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등이다. 면소재지에 입지해야 할 편의시설은 중학교, 농기구 수리센터, 상설시장, 농자재상, 주유소, 협동조합, 직행버스 정류장, 병(의)원 등이다. 농촌중심도시에 입지해야 할 편의시설은 쓰레기 처리시설, 종합버스 터미널, 종합병원, 하수처리장, 치과병원, 가축병원, 도서관, 농기구 수리센터, 백화점 및 유통센터, 자동차 정비학원, 공원, 노인회관, 장의사, 은행, 종합운동장, 협동조합, 문화회관, 청소년 회관, 종합미곡처리장 등이다.

단위 : 명(%)

표 17. 농촌 정주체계별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도

마을				면소재지			농촌중심도시				
편의시설	꼭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필요없다	편의시설	꼭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필요없다	편의시설	꼭필요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하다	필요없다
가토동	279(74.2)	85(22.6)	12(3.2)	중학교	250(66.5)	108(28.7)	18(4.8)	쓰레기처리시설	255(69.8)	109(29.0)	12(3.2)
공중전화	247(65.7)	108(28.7)	2(15.6)	농기구수리센터	248(66.0)	121(32.2)	7(1.9)	종합버스터미널	253(69.3)	116(30.9)	7(1.9)
상수도시설	232(61.7)	121(32.2)	23(6.1)	상설시장	236(62.8)	126(33.5)	14(3.7)	종합병원	251(66.8)	109(29.0)	16(4.3)
노인회관	231(61.4)	124(33.0)	2(15.6)	농자재상	229(60.9)	132(35.1)	15(4.0)	하수처리장	244(64.9)	119(31.6)	13(3.5)
약방(매약업소)	226(60.1)	114(30.3)	36(9.6)	주유소	208(55.3)	151(40.2)	17(4.5)	치과병원	243(64.6)	122(32.4)	11(2.9)
우체통	221(58.8)	131(34.8)	24(6.4)	협동조합	200(53.2)	143(37.8)	34(9.0)	가축병원	241(64.1)	125(33.2)	10(2.7)
공동쓰레기장	216(57.4)	137(36.4)	23(6.1)	직행버스정류장	199(52.4)	155(41.2)	24(6.4)	도서관	240(63.8)	128(34.0)	8(2.1)
하수도시설	200(53.2)	145(38.6)	3(18.2)	병의원	195(51.9)	164(43.6)	17(4.5)	농기구수리센터	240(63.8)	129(34.3)	7(1.9)
어린이놀이터	193(51.3)	155(41.2)	28(7.4)	농기구판매소	187(49.7)	157(41.8)	32(8.5)	백화점 및 유통센터	237(63.0)	124(33.0)	15(4.0)
버스정류장	191(50.8)	148(39.4)	37(9.8)	노인회관	186(49.6)	168(44.7)	22(5.9)	자동차경비공장	231(61.4)	126(33.5)	19(5.1)
마을회관	191(50.8)	151(40.2)	34(9.0)	공동쓰레기처리장	185(49.2)	159(42.3)	32(8.5)	공원	226(60.1)	123(32.4)	28(7.4)
오폐수정화시설	183(48.7)	150(39.9)	43(11.4)	공동목욕탕	180(47.9)	170(45.2)	26(6.9)	노인회관	219(58.2)	134(35.6)	23(6.1)
유치원	181(48.1)	126(33.5)	69(18.4)	하수처리장	173(46.0)	159(42.3)	44(11.9)	장의사	217(57.7)	135(35.9)	24(6.4)
탁아시설	178(47.3)	130(33.5)	68(18.1)	치과의원	160(42.6)	181(48.1)	35(9.3)	은행	216(57.4)	140(37.2)	20(5.3)
공동농산물창고	171(45.5)	155(41.2)	50(13.3)	복지회관	160(42.6)	176(46.8)	40(10.6)	종합운동장	211(56.1)	139(37.0)	26(6.9)
농기계보관소	159(42.3)	170(45.2)	47(12.5)	고등학교	158(42.0)	131(34.8)	87(23.1)	협동조합	207(55.1)	144(38.3)	25(6.6)
국민학교	157(41.8)	111(29.5)	108(28.7)	한의원	154(41.0)	184(48.9)	38(10.1)	문화회관	202(53.7)	143(38.0)	31(8.2)
주차장	146(38.8)	159(42.3)	71(18.9)	도서관	131(34.8)	202(53.7)	43(11.4)	자동차운전연습장	198(52.7)	140(37.2)	38(10.1)
구판장	145(38.6)	179(47.6)	52(13.8)	금융기관	129(34.3)	179(47.6)	68(18.1)	화물운수센터	195(51.9)	155(41.2)	26(6.9)
식료품점	139(37.0)	168(44.7)	69(18.4)	종합미곡처리장	122(32.4)	175(46.5)	79(21.0)	청소년화관	189(50.3)	157(41.8)	30(8.0)
마을독서실	133(35.4)	186(49.5)	57(15.2)	농산물가공공장	112(29.8)	201(53.5)	63(16.8)	종합미곡처리장	188(50.0)	155(41.2)	33(8.8)
공동작업장	117(31.1)	199(52.9)	60(16.0)	택시영입소	101(26.9)	193(51.3)	82(21.8)	농산물가공공장	186(49.5)	163(43.4)	27(7.2)
공동축사	75(14.9)	158(42.0)	143(38.0)	공원	101(26.9)	180(47.9)	95(25.3)	실내체육관	180(47.9)	151(40.2)	45(12.0)
새마을금고	74(19.7)	155(41.2)	147(39.1)	화물운수센터	96(25.5)	191(50.8)	89(23.7)	농산물냉동냉장고	178(49.3)	160(42.6)	38(10.1)
				숙박시설	89(23.7)	156(41.5)	131(34.8)	전문대학	176(46.8)	154(41.0)	46(12.2)
				사설학원	82(21.8)	163(43.4)	131(34.8)	자동차폐차장	170(45.2)	137(36.4)	69(18.4)
				공설운동장	66(17.6)	151(40.2)	159(42.3)	도축장	159(42.3)	146(38.8)	71(18.9)
				공원장	46(12.2)	118(31.4)	212(56.4)	사설학원	117(31.1)	197(52.4)	62(16.5)
								직업훈련소	109(29.0)	190(50.5)	77(20.5)
								대학교	86(22.9)	147(39.1)	143(38.0)

VI. 결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이란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간단히 정의한다면 『얼마나 인간답게 사는가』 또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다.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인 절대빈곤은 극복하였지만 도시산업부문에 비해 소득, 근로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의료시설, 문화환경 등이 열악하여 농촌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촌주민들이 농촌과 농업을 굳건히 지키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농촌에서 살아나가기에 필요한 기초수요부터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최빈값을 토대로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가가구의 평균소득이 최소한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90~100%는 되어야 한다.
- ② 1일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7~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농업종사자는 남녀 모두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농촌주민들의 자녀 교육비는 농가소득의 6~9% 수준이어야 한다.
- ⑤ 농촌 국민학생의 통학시간은 20분 이내라야 하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21~30분이어야 한다.
- ⑥ 농촌 주민들의 약국 접근시간은 15분 이내, 병(의)원 접근시간은 16~30분 정도라야 한다.
- ⑦ 농촌주민들은 연간 3~4회의 보건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⑧ 농가 주택규모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소한 20~25평은 되어야 한다.
- ⑨ 농촌주민들은 영화, 연극, 음악회, 미술전시회, 박물관 관람 등과 같은 문화활동을 연간 3~4회, 관광활동도 연간 3~4회는 즐겨야 한다.
- ⑩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에 입지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은 가로등, 공중전화, 상수도 시설, 노인회관, 약방, 우체통, 공동쓰레기장 등이며 면소재지에 입지해야 할 편익시설은 중학교, 농기구 수리센터, 상설시장, 주유소, 직행버스 정류장, 병(의)

원 등이다. 농촌중심도시에 입지해야 할 편익시설은 쓰레기 처리시설, 종합버스 터미널, 종합병원, 가축병원, 도서관, 공원, 노인회관, 문화회관, 청소년 회관, 종합미곡처리장 등이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굳건히 육성되어야 하며 농촌은 귀중한 국토자원으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촌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우선 이 연구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촌주민들의 기초수요부터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 1) 최외출, “기초수요전략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고찰”, 『지역사회개발논총』, 제6집, 대구대학교, 1984, p 153
- 2) Hans W. Singer, “The Basic-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Planning”, 변형윤, 김대환 편역, 『제3세계의 경제발전 - 종속이론의 구조』, 까치, 1980, p325.
- 3) Dudley Seers,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December, 1969, pp. 2~6.
- 4) James H. Weaver, etal, “A Critical Analysis of Approach to Growth and Equality”, 변형윤, 김대환 편역, 전게서, pp. 335~346.
- 5) 상계서, pp. 337~338.
- 6) 조명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초수요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 15.
- 7) Cho Chae Youk, “A Study on Basic Minimum Needs at the Micro Area Level in Korea”,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0, p. 2.
- 8) 권갑늬,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need에 관한 연구”, 『새마을 지역개발논집』, 제11집, 영남대학교, 1990, p.8.
- 9) United Nations Secretariat, Measurement of Basic Minimum Need, Human Needs and Region Development, edited by Haruo Nagamine, Maruzen Asia, 1981, pp.11~17.
- 10) Norman Hicks and Paul Streeten, Indicators of Development ; the Search for a Basic Need Yardstick,

World Development, June/1979, p.578.

- 11) J.McTtale and M.C.McTtale, Basic Human Needs : A Framework for Action, UN Report, 1977, p.3.
- 12) R.P.Misra, "Meeting the Basic Needs of people", Working Paper in United Nations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Nagoya, Japan, 1978, p.6.
- 13) D.Schwefel, "Who Benefits from Development and Employment",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Berlin, 1975.
- 14) 김재홍, "지역개발전략으로서 기본수요적 접근방법의 의의", 『지역개발연구논총』, 제1집, 충남대학교, 1989, p.113. 15) 김진원, "한국농촌의 기초수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p.16~17.
- 16) 김영모, 지역개발계획론, 지역연구소, 1987, pp 130~132.
- 17) 김수옥 편, 『한국과 일본의 농촌』, 범론사, 1995, pp.32~33.

참고문헌

1. 김동일 외 2인, 『한국 농촌주민의 삶과 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2. 김수옥 편, 『한국과 일본의 농촌』, 범론사, 1994.
3. 김수옥 외, "농촌지역의 사회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농자원개발논총 제18집, 건국대학교부설농업자원개발연구소, 1993.
4. 김수옥 외 편역, 『지역분석의 이론과 실제』, 범론사, 1989.
5. 김진원, "한국농촌의 기초수요에 관한 연구", 경

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12.

6. 농촌개발연구소 편, 『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1990.
7. 송병국, "농촌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8. 심재웅, "농촌지역의 사회생태학적 분석", 『농촌경제』 제 4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9. 최민호 외,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본수요의 분석", 서울대 농학연구지 제 13권 제 1호,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988.
10. 최병익·정지웅, "농촌지역간의 복지수준 측정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19권 제 2호, 1987.
11. 최양부 외,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84, 1984.
12. 한경혜, "농가의 『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1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14. Dennis A. Evans, "Community Leaders Assess Quality of Life", 『Journal of Extension』, 1977.
15. Drewnoski. J, "Studies in the Mesurement of Level of Living = Welfare", UNRIRD Report, No. 3, Genova, 1970.
16. Misra, R. P., "Meeting the Basic Needs of People", Working Paper in UNCRD, Nagoya, Japan, 1978.
17. Norman, Hicks = Paul Streeten, "Indicators of Development : the Search for a Basic Needs Yardstick", 『World Development』, 1979.
18. Seers, Dudley, "The Meaning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Review』, 1969.